

## 제주 기생 김만덕에 대한 심노승의 또 다른 시선\*

한새해\*\*

<차례>

- I. 서론
- II. 만덕이야기의 입전 배경과 동기
- III. 심노승이 만덕을 부정하는 몇 가지 이유
- IV. 결론

### <국문초록>

논고는 제주 기생 김만덕의 이야기 『만덕전』(萬德傳)의 문학화 과정이 개별 작가마다 태동하게 된 원인에 주목하고 그 시각차의 형성 연원을 당대 역사적 흐름 속에 재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간에 ‘제주의 기민을 구휼한 의로운 거상(巨商)’으로 추앙받아 온 기생 김만덕의 문학적 기술 구현 방식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당대 사대부의 체문제 인식이 단일하거나 정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현존하는 기록 문헌 중, 유일하게 김만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한 심노승의 인물전을 토대로, 기생과 치부(致富) 행위를 바라보는 남성 사대부의 시선을 당대 사회·정치적 제반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간의 화석화된 김만덕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는 심노승의 시선은, 제주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여성·기생·치부를 타자화한 노론계 사대부의 이데올로기와 그 의식의 소산을 여과 없이 제공할 것이다.

□ 김만덕, 심노승, 당쟁, 정보 습득의 차이, 치부(致富), 기생, 위기의식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4439)).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 1. 서론

본 연구는 ‘제주의 기만을 구휼한 의로운 거상(巨商)’으로 추앙받는 기생 ‘김만덕’(金萬德, 1739~1812)의 문학적 기술 구현 방식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당대 사대부의 제문제 인식이 단일하거나 정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고는 특히 조선후기 노론계 문인이었던 효전(孝田) 심노승(沈魯崇, 1762~1837)을 중심으로 만덕의 치산(治産) 행위와 구휼 과정을 면면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가 심노승의 평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간 조정의 학사들로부터 추호의 의심 없이 추앙받던 김만덕의 공적(功績)에,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는 문헌상 거의 유일하게 부정적 이견(異見)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덕전』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sup>1)</sup> 심노승의 이러한 지적을 언급하면서도 만덕을 조망하는 개별적 사례로만 정리할 뿐<sup>2)</sup> 이와

- 1) 심노승의 만덕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김영진의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산문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44~46쪽)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심노승은 인물전 『계섬전』(桂織傳)에서 기생 계섬의 의기(義氣)를 기리고 있는데, 이 글의 말미 논평부에서 만덕의 위선(僞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진은 체제공의 『만덕전』과 심노승의 『계섬전』은 1797년 동시대 작품으로 형식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며, 남인의 영수였던 체제공을 비판하는 (의도적인 차원에서의) 심노승의 당파적 입장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연구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졸고의 『심노승의 정치적 입장과 산문세계』(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140~143쪽)에서도 심노승의 문헌을 통해 만덕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만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소연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요하고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총서 I 恩光衍世』, 도서출판 각, 2007; 조도현, 『만덕전(萬德傳)』에 나타난 여성성의 의미 탐색, 『인문학연구』 8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그러나 기존의 연구 전부가 만덕의 생애를 통설대로 아무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김준형의 연구(『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관련한 심층적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주지하듯,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만덕전」(萬德傳)<sup>4)</sup>은 제주의 기근을 구휼한 김만덕의 공로를 높이 산 정조(正祖)의 명으로 집필되었다.<sup>5)</sup> 그러므로 왕명(王命)으로 기술된 채제공의 「만덕전」은 그 기록의 시발 전제에서부터 이미 그녀의 치적(治績)과 치부(致富)의 과정에 긍정성이 내포될 것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로부터 남인(南人)의 영수였던 채제공 이하 정약용(丁若鏞, 1762~1836)<sup>6)</sup>· 이재채(李載采, 1806~1833)<sup>7)</sup> 등의 남인계(南人系)가 주로 만덕을 의로운 거상으로 기록하는데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에서는 채제공과 심노승의 입장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 이르고 있는데, 채제공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만덕의 행위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심노승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치부의 과정’에 관심을 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때 심노승이 ‘타당하지 않은 인물’ 만덕을 정당화하는 지배층의 한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필자는 이 논문의 입장과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 있지만, 논고의 핵심은 ‘심노승은 왜 김만덕을 입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보았는가?’의 문제와 ‘당파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의 문제로 예각화된다.

- 3) 이창훈의 「김만덕의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영주어문』 22, 2011, 202쪽)에 따르면, 김만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심노승의 기록이 작품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폄하하거나 훼손시키기 싫다는 정서적인 반감과 김만덕을 지역의 대표 인물로 키우고 있는 김만덕 기념사업회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취한다.
- 4) 蔡濟恭, 「萬德傳」, 『樊巖集』, 한국문집총간 236.
- 5) 만덕의 이야기는 채제공의 작품을 근간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채제공의 「만덕전」을 살펴보면, 저자가 직접 만덕을 위로하기 위해 전기를 지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실상은 정조의 심증을 간파한 변암(樊巖)의 의도적 집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채제공의 「만덕전」 입전 시기는 1797년 [丁巳夏至日]이고, 『日省錄』과 『承政院日記』를 참고하면 이에 앞서 이미 정조는 1796년 11월 초계의 친시(親試)로 만덕전을 짓게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때 서준보(徐俊輔, 1770~1856)가 수석을 차지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승정원일기』(1796년 11월 28일조)에 실려 있다.
- 6)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 7) 李載采, 「萬德傳」, 『五園集』,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 대동문화연구원 2002.

편승하고 있는 사실은, 정조가 유독 체제공을 지목하여 ‘만덕의 이야기’를 기술하도록 하달한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될 때,<sup>8)</sup> 당시 비주류였던 남인의 당파적 계위나 입장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정치적 메커니즘과 상호관련성은 없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sup>9)</sup>

만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인들로는 남인계 외에도 소론(少論) 출신 홍희준(洪羲俊, 1761~1841)의 『만덕전』<sup>10)</sup>이 있는데, 이 작품은 그가 초계문신으로 재직할 당시 응제(應製)한 것이다. 이처럼 정조의 하교를 받들어 지어 바친 또 다른 만덕이야기로는 김희락(金熙洛, 1761~1803)의 『봉교제진만덕전』(奉敎製進萬德傳)<sup>11)</sup>과 이희발(李羲發, 1768~1850)의 『만덕전』<sup>12)</sup> 역시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 역시 응제를 받들어 작품화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왕명을 거슬러 만덕을 부정적인 각도에서 서술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심노승의 경우, 당시 실세인 노론계(老論系)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소외된 위치에 있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노론 시·벽(時·

8) 『정조실록』을 참고하면, 김만덕이 제주 기민을 구휼하고 그에 대한 은전(恩典)으로 상경(上京)했을 당시 서울에서의 생활이 녹록치 않음을 체제공에게 호소한다. 체제공이 정조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이에 국왕은 만덕을 행수 의녀로 임명에 그 편의를 도모해 주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황은 각개 인물을 둘러싼 상호이해관계의 알고리즘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9)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당파적 입장으로 귀결될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작가의 정파적 입지와 연동되는 차원에서 그에게 영향을 끼친 가계·가학·가풍 등의 연원을 아울러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론 벽파였던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제주에 유배되었을 당시 써주었다던 만덕의 현판을 생각해보자. 그의 출신 계위를 상기하면 당대 문인들의 당파적 입장은 기생 만덕과 어떠한 역학관계 속에서 상호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또 다른 생각을 제공한다.

10) 洪羲俊, 『萬德傳』, 『傳舊』 10책, 규장각 소장본.(古 3428 290)

11) 金熙洛, 『奉敎製進萬德傳』, 『故寔』 권4, 규장각 소장본.(古 0270 13)

12) 李羲發, 『萬德傳』, 『雲谷集』, 한국문집총간 속 111. 이 글의 제목 아래 ‘此下奎章閣講製時奉敎製進’가 부기되어 있다.

儻)<sup>13</sup>간의 내용 속 벽파의 부침에 관직에 오르기도 여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타격인해 한동안 유배를 전전한다.<sup>14</sup> 다시 말해서, 심노승은 채제공·홍희준·이희발 등의 경우와 다르게 자발적 경로로 만덕의 부정적인 면모를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인다. 그리하여 논고의 핵심은 ‘심노승은 왜 김만덕을 입전(入傳)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보았는가?’와 ‘당파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만덕 연구와 관련한 지난 연구를 수렴하면서도 기존 논의와의 차별성을 제시하기 위해 익히 알려져 있는 채제공의 『만덕전』 외 작품군들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초계 응제로 지어진 작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문헌으로 찾을 수 있는 만덕의 ‘전’(傳)을 검토하고, 그 개별 작가마다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기술방식 등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본고는 심노승이 기생 만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를 그가 놓인 정치적 입장과 사회경제적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주체의 성격과 시각을 소연히 하는 데 이르고자 한다. 아

13) 심노승의 부친 심낙수(沈樂洙, 1739~1799)는 당시 노론 시파의 수장으로서 활약하였으나, 당익이나 정치적 득실은 고려하지 않는 근본주의적 입장을 고수한다. 곧 심낙수는 일체의 정치적 타협이나 절충을 거부한 채 강개한 당론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그는 동료 문인 집단이나 정파 차원의 체계적 후원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영정조시대의 당쟁과 관련하여 ‘시벽(時僻) 분기와 심낙수의 당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줄고의 연구(같은 논문, 11~26쪽) 참조.

14)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었던 시기는 1797년이며, 동시기 심노승도 『계섭전』의 논평부에서 만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데, 이 시기는 시파의 선봉장이었던 부친 심낙수의 은퇴기이다. 그러나 정조의 탕평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던 당파간의 보합은 국왕의 갑작스러운 서거 이후 달라진다. 순조 즉위 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권력을 잡은 벽파에 의해 심노승은 1801년 부친의 죄가 연좌되어 경상도 기장현으로 유배를 당한다.

올려 이러한 작업은 그간에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고착되었던 김만덕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함으로써 인간 김만덕의 삶과 절곡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II. 만덕이야기의 입전 배경과 동기

이 장에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 만덕의 일화를 서사양식으로 나타낸 작품군 중 특히 전(傳)의 형태로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15)</sup> 심노승이 만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술한 양식은 인물전(人物傳)-특히 논평부-이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서사양식의 체계 하 작품간 분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만덕전』의 올바른 이해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작품의 입전 배경과 경위 등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성을 구휼한 만덕이야기는 실화를 전제로 형성된 것으로 만덕이 1795년 제주민을 구휼하기 전부터 탐라는 오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sup>16)</sup>

(가) 제주에 큰 기근이 들어 남쪽 바다 연안의 곡식을 실어다 구휼하게 하고 1년 동안 공물 바치는 것을 면제해 주도록 명하였다.

전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장계(狀啓)를 올려 이되기를, “올해 세 고을

15) 전(傳)이외에도 만덕이야기는 ‘서사한시(敘事漢詩)·변(辨)·제(題)·필기(筆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은 진재교의 『한국 한문서사 양식의 층위와 변모』,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44쪽 참조. 한편 만덕이야기의 인물전을 기술한 작가 중에는 중인 출신인 유재건의 『만덕전』 또한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여타 작가들의 출신 경위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16)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년) 12월 1일조 참조.

의 농사는 간간이 단비를 만나 크게 풍년이 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8월 27일과 28일에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가 나부끼는 것이 마치 나뭇잎이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곡식이 짓밟히고 피해를 입은 것 외에도 바다의 전물에 마치 김치를 담근 것 같이 절여졌습니다. 80, 90세 되는 노인들도 모두 이르기를 ‘전전 기사년[1713]에 이런 재해가 있었는데 올해에 또 이런 재해가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대정(大靜)과 정의(旌義)의 피해가 더욱 심한데, 온 섬 안의 각 면과 리(里)에 좀 낮고 못한 등급을 나눌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은 큰 흉년은 고금에 드문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식량은 여름철에 보리가 조금 풍년이 들어 우선 굶주림은 면할 수 있으나 10월 이후에는 형세가 장차 조정에 먹을 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쌀로 쳐서 2만 여 섬을 배로 실어 보내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장차 다 죽을 것입니다. 곧바로 묘당에 명하여 제때에 조치하게 하여 10월 안으로 6, 7천 섬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 나머지 1만여 섬은 정월부터 계속 도착하게 한 연후에야 죽는 것을 서서 바라보는 데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sup>17)</sup>

(나) 제주(濟州)의 기생 만덕(萬德)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沿路)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sup>18)</sup>

17)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년) 9월 17일. “濟州大饑, 命移南沿粟以賑之, 蠲一年貢獻. 濟州前牧使沈樂洙狀啓曰: ‘今年三邑穡事, 間得甘露, 大有豐登之望矣, 不意八月二十七八日, 東風大作, 瓦飛石走, 飄如飛葉. 禾穀蹂躪, 被傷之外, 海沫鹹水, 如鹽沈澁. 八九十歲老人皆云: ‘二去癸巳年有此災, 今年又有此災.’云. 大靜、旌義被災尤甚, 一島之內, 實無各面里稍實、之次之可以分等者, 如此大無, 古今所罕. 即令民食, 以夏間麩麥之稍豐, 姑無飢餓, 而十月以後, 勢將望哺於朝廷. 若非折米二萬餘石船運, 則民將盡斃, 即令廟堂, 及時措畫, 十月內限六七千石, 先爲入送, 其餘萬餘石, 自正月連續到泊, 然後庶不至立視其死矣.’”

18)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년) 11월 25일조. “濟州妓萬德, 散施貨財, 賑活饑民, 牧使啓聞. 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예문 (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흉년을 겪고 있었던 제주의 정황이 포착된다. 때문에 정조는 곡식으로 기민들을 구휼하고 1년 동안 공물 바치는 것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sup>19)</sup> 이때 제주의 기근을 국왕에게 보고한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 1739~1799)는 심노승의 부친이 된다.<sup>20)</sup> 심낙수의 장계(狀啓)에 정조는 1794년 10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제주로 진휼곡(賑恤穀)을 전달하게 명하지만<sup>21)</sup>, 1795년 그 중 일부 풍랑으로 파선(破船)하여 1만 1천 석이 침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sup>22)</sup>

제주의 거듭된 악재를 보다 못한 만덕은 예문 (나)에서처럼 자신의 재산을 회사하여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응보의 보답으로 국왕에게 금강산과 서울 유람을 허락받는다. 이것이 익히 알려져 있는 만덕의 일화이며, 실록(實錄)의 기록으로 보아 거의 사실이라고 보아도 무관한 듯하다. 그런데 만덕이야기의 상징성 때문인지, 이 당시 제주의 기민을 구휼한 이가 자칫 ‘김만덕’뿐이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않다. 만덕과 동시기 주민(州民)으로서 원납(願納)한 인물로는 순장(巡將) 출신 홍삼필(洪三弼)을 필두로 제주 판관 조정일(趙敬日), 대정 현감 고한록(高漢祿), 정의 현감 홍상오(洪相五) 등이 박한 녹봉을 덜어서 성심으로 기민을 구제하였다는 기록 역시 왕왕 찾을 수 있으며, 이들 또한 정조의 명으로 응당의 보응을 받았다.<sup>23)</sup>

19)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년) 3월 2일조 심낙수의 장계(狀啓) 참조.

20)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년) 11월 11일조를 살펴보면, 당시 제주에는 황폐하여 굶어 죽는 이가 몇 천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인데, 제주목사 이철운(李喆運)이라는 자는 백성들을 구제하기는커녕 구제할 물자를 도둑질하여 자신의 잇속만을 챙긴 죄를 상소하는 기록이 드러난다. 정조는 이에 제주의 실정을 소상히 알게 되고 해당 목사의 처단을 명함과 동시에 심낙수를 안핵 어사로 임명하였는데 이후 그는 후임 목사가 된다.

21) 『일성록』, 정조 18년(1794년) 10월 15일조 참고.

22)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년) 2월 3일조 참고.

23) 『일성록』, 정조 20년(1796) 6월 6일조. “該牧使狀啓, (…)願納州民前巡將、洪三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의 선행만이 유독 추앙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제주목사의 장계(狀啓)에 “(…) 노기(老妓) 만덕(萬德)은 사리상 진실로 구할 것이 없는데도 재물을 가볍게 여길 줄 아니, 비천한 무리가 더욱 능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전교하기를) “노기 만덕은 그가 무엇을 구하기에 이렇게 100포(包)에 가까운 백대미(白大米)를 마련하여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면천(免賤)을 해 주든지 별도로 보상해 주든지 간에 경은 그가 원하는 대로 시행해 준 뒤에 거행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라.’라는 내용으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sup>24)</sup>

위 인용문은, 당시 제주목사였던 유사모(柳師模, 1750~?)가 도민을 진휼(賑恤)하고 그 과정에 일조(一助)한 이들에 대한 장계를 올린 것인데, 이에 정조는 녹봉을 덜어 진휼에 보탠 수령과 원납한 섬사람들에게 시상하라고 진달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이때 목사가 만덕의 공적을 치하하며 ‘노기(老妓)라고 진달하는 점을 주목하자. 정조의 비답(批答)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김만덕은 여성이되, 늙었으며 특히 출신이 비천한 기생이다. 앞서 살펴본 제민을 구휼한 남성군과 그녀의 출신 성분은 여러 면으로 이질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한 자질<sup>25)</sup>은 만덕의 일화가 전전화(傳

---

比年補賑穀數夥，然其出義捐財之誠極爲嘉尙。(…) 吏曹啓言：‘濟州判官、趙敬旦、大靜縣監、高漢祿，旌義縣監、洪相五等，捐出薄廩，誠心拯救殊，甚可嘉。趙敬旦、高漢祿似當施以陞敘之典，洪相五則似當施以兒馬賜給之典，而係千恩賞，請上裁。’從之。”

24) 『일성록』, 정조 20년(1796년) 6월 6일조. “該牧使狀啓, ‘(…) 老妓萬德, 理固無求, 亦知輕財, 卑賤之中, 尤所難能.’ (…) 老妓萬德渠何所求辦, 此近百包白大米調飢濟乏乎. 免賤與別般酬勞間, 卿其從願施行後形止, 狀聞事回諭.”

25) 정약용은 김만덕의 4가지 희귀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자, 종, 기생, 외진 섬사람’이라는 자질에 주목한다. 정약용, 『題耽羅妓萬德所得搢紳大夫贈別詩卷』, 『與猶堂

記化) 혹은 문학화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그녀의 선행을 왕과 학사들이 주목하는 이유와도 상호작용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여타 문인들의 작품들에서 만덕은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는가? 먼저 체제공의 「만덕전」처럼 왕명으로 입전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 만덕은 탐라 여성이다. 소싯적 기생의 신분이었는데 키가 크고 몸집이 컸으며 성격은 자못 대범하여 창기로서의 요염하고 화려한 자태는 없었다. 항상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남자를 보면 어리석고 하찮은 무리는 업신여겼다. 탐라의 풍속은 땅이 척박하였고 백성은 가난하여서 해산물로 살 길을 찾았는데, 만덕은 십년 동안 재물을 늘려 만금을 이뤘으니 그 재능의 뛰어남이 또 이와 같았다. 평생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급히 구제하였던 까닭으로 이웃 사람들이 만덕에게 의지하여 연명한 자가 매우 많았다. 을묘년(乙卯年) 가을 큰 흉작이 들자 국가에서 곡식 수만을 내어 배에 싣고 가 먹였으니, 만덕이 말하기를 “온 섬의 백성이 모두 나의 형제이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집에 남은 재물이 있고 곳간에 남은 곡식이 있으니 남의 환난에 무관심한 것은[越視秦瘠] 의(義)가 아니다.” 하였다.<sup>26)</sup> 밑줄은 필자.

(나) 마주(馬州)의 기녀 만덕은 어느 마을 어느 번째로 태어났다. 용모가 빼

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女而重瞳子, 婢而被驛驛, 妓而令僧肩輿, 絕島而受內殿龍錫, 四稀也.”

26) 洪義俊, 『萬德傳』, 『傳舊』 卷 10, 규장각 소장본.(古 3428 290) “萬德者, 耽羅女也. 少屬妓籍, 身長而貌偉, 性頗倜儻, 絕無娼妓妖麗之態. 常以不爲男子, 不得爲人間快事爲恨, 而視男子, 庸瑣之輩, 蔑如也. 耽羅之俗, 土瘠民貧, 以魚藿爲生, 而萬德能十年殖貨, 身致萬金, 其優於才能, 又如此. 平生好施與, 能急人之難, 故隣族賴而爲命者, 甚多. 歲乙卯秋大無, 國家捐穀數萬, 包船而往哺, 萬德曰: ‘一島之民, 皆吾兄弟之顛連者也. 吾家有餘財, 庾有餘粟, 而越視秦瘠, 非義也.’”

어나지 않았고 가무 솜씨는 없었으나, 성품이 활달하고 재산이 많았다. 탄식하며 말하기를, “탐라와 서울은 멀리 떨어져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장차 굶주려 죽어가니 성상께서 자리를 비워 두고 근심하신다. 나는 비록 비천하나 품 안에 물건과 같으니, 왕의 영토에서 거처하고 먹으면서도 나는 곡식을 바치지 않는 백성이니 자손의 계책을 위하겠는가? 자신이 소유한 곡식을 기울여 진흙미 600곡을 내니, 탐라 백성들이 열흘을 연명할 수 있었다. (…)남의 급난을 구하는 높은 의기는 협사전(俠士傳)에 두어도 부끄러운 빛이 없다.<sup>27)</sup> 밑줄은 필자.

(다) “만덕은 제주의 기생이다. 내가 그 성씨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삼을나(三乙那)의 후손일 것이다. 용모는 빼어나지 않았고 천성이 가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홍불(紅拂)을 든 미인의 태도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물은 촉청(蜀淸)에 비길 만하며, 의(義)를 급선무로 여기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옛날에 이른바 여협(女俠)의 무리였도다. 지난 갑을년(閏逢旃蒙)에 제주 대기근이 있었다. 임금께서 하문하시길, “대농[大農: 조세와 전곡·염철을 맡은 관아]에 명하여 내탕전(內帑錢)을 내시었으며 거둬 목백(牧伯)에 명하여 호남과 영남의 곡식을 옮겨서 배에 싣고 가 먹여라.” 하였다. 이에 탐라에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었고 병든 자가 없었다. 그러나 구풍(颶風)과 사나운 파도가 있어 간혹 내려주신 곡식을 실기(失期)하여 면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만덕이 개연(慨然)히 말하기를, “백성들이 막 구렁이에 빠져서 성상께서 백성을 위로하고 염려하심이 이와 같다. 나는 감히 소유한 바를 다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으니 성상의 뜻에 만분의 일을 체현하고자 함이라.” 하였다. 이에 저축한 600곡을 내어 기민을

27) 金熙洛, 『奉教製進萬德傳』, 『故寔』 권4, 규장각 소장본(古 0270 13) “馬州妓有萬德者, 生某里某第. 貌不揚, 短歌舞, 性濶狹, 質擬蜀淸, 喟曰: ‘羅距京百舍, 海環, 年歉, 民將劉, 聖上側席憂勤. 吾雖賤, 猶化中物, 居王土, 食王土, 吾弗粟民, 猶爲子孫計? 罄其有, 出賑六百斛, 羅民得延一旬. (…)悤人高義雖置俠士, 傳中無愧色矣.”

구휼하였다.<sup>28)</sup> 밑줄은 필자.

인물전의 장르적 관습이 그러하듯, 인용문의 도입부는 모두 만덕의 출신 성분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그녀가 제주 출신이며 기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제요소이다.

그런데 위 예문들에 나타난 공통적인 만덕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기녀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다. 으레 기생이 지녀야 할 요염함·화려함·아름다움 등의 미적 요소는 물론이거니와 창기로서 응당 갖추어야 마땅할 가무(歌舞) 능력마저 소거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가)에서 보듯, 만덕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하였으며 남자답지 못한 소인배들을 무시하고 평소 베풀기를 좋아하는 등 장부의 기질을 지닌 담대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만덕의 모습은 그녀가 직접적으로 전하는 언술 ‘越視秦瘠, 非義也.’ 곧 월시진척(越視秦瘠)[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의 땅이 걸거나 메마름을 상관하지 않는다]이라는 고사를 거론하며 극대화된다. 다시 말하면 (가)의 작가는 제민들의 어려움에 개의하지 않는 것이 ‘의(義)가 아님을 밝히는 만덕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구현해냄으로써, 민중 구휼을 위해 도의(道義)나 의리(義理)를 실천하는 만덕의 모습을 마치 ‘군자(君子)’와 유비한 관계에 있는 듯 기술하고 있다. 뿐 아니라 인용문 (나)에서 만덕은 임금께서 백성들을 구휼하는 모습을 헤아리는 ‘선지적(先知的)’ 여성으로 형상화되며, 작가는 협사전(俠士傳)에 넣어도

28) 李義發, 『萬德傳』, 『雲谷集』, 한국문집총간 속 111. “有萬德者, 州妓也. 余未詳其姓氏, 蓋是三乙那之遺裔也. 貌不揚, 性不喜歌舞, 不作紅拂佳冶之態. 而貨擬蜀滄. 有急義好施與, 古所謂女俠者流歟. 粵在閔逢旃蒙之歲, 州大饑. 上曰咨: ‘乃命大農發內帑錢, 申命牧伯, 移湖嶺粟船載往哺之.’ 於是羅之人, 飢者飽, 病者蘇. 而颶風鯨濤, 或未免繼廩失期. 萬德慨然曰: ‘民方溝壑 而國家之勤恤若是. 余敢不罄吾所有, 濟我飢口, 以仰體聖意之萬一乎.’ 乃出所儲六百斛以賑之.”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찬탄해 마지않는다. (다)에서 역시 만덕이 ‘협녀(俠女)’에 비견되며 사마천의 열전에서 보기도 드문 것이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주목된다.<sup>29)</sup>

이상의 작품이 제주민중을 구한 만덕의 치적을 높이 산 임금의 명으로 창작된 응제문(應製文)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개별 작가들이 왜 만덕을 창기(娼妓)의 형상에서 배제시키고 오히려 그녀를 의협심이 강하고 국가·민족을 위하여 희사한 ‘의사’(義士)로 언급하였는지 쉽게 이해된다. 이 작품들은 애초에 국왕에 의해 (대상인물의) 가치 구현이 의도된 작품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비자발적인’ 경로로 지어진 작품이기에 만덕을 위한 미사어구나 예찬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결국 (가)·(나)·(다)와 같은 작품군은 이미 작가의 찬술을 이전부터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정해진 인물전이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때문에 응제문자로 기술된 이 「만덕전」들은 만덕에 대한 저간의 상황을 당사자에게 듣거나 해당 지역에서 상세한 사정을 보고 들으며 창작된 작품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이들이 「만덕전」을 기술하였을 당시, 만덕의 일화는 이미 서준보 이하 문인에 의해 서사의 기본 골격을 갖춘 상태로 입전된 이후였다.<sup>30)</sup>

한편 특수한 지역에서 일어난 기생의 기민 구제 사건은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만덕이 조정에 소원한 포폄(褒貶)이 당시 제주여성에게 국법으로 부여된 출륙금지령을 깨고 바다를 건너 서울과 금강산을 유람하고자 청한 일 또한 충분한 이야깃거리로 작용했을 것이다. 예컨대 정약용의 「중동변」(重瞳辨)<sup>31)</sup>을 살펴보면, 만덕에 대한

29) 李義發, 「萬德傳」, 『雲谷集』, 한국문집총간 속 111. “萬德以海島倡妓之賤, 能兼而有之則未知太史氏列傳, 亦有是也. 此不可以無傳, 遂爲之傳.”

30) 본고 주 5의 내용 참조.

비상한 관심의 한 사례로 당시 그녀의 눈동자가 두 개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산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변증하는 기록을 남긴다.

이렇듯 만덕의 일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연·담화하는 과정에서 허구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재창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 뿐만 아니라 내의원 의녀의 반수(班首)로 삼아 적극적으로 한양과 금강산 유람을 도왔던 조정의 개입과 보상, 그리고도 은전(恩典)으로서 『만덕전』을 짓게 한 특혜는 그녀가 지배 이데올로기 체제 하 ‘공식적으로 용인’된 문학화의 소재였음을 반증한다. (정조가 만덕 일화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했던 정치적 전략이 어떠한 간에) 결국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시 만덕이야기는 일종의 전범(典範)으로 작용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만덕을 칭송하는 여러 학사들은 각자의 제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새로운 일화들을 보태고 가공하여 문학화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테면 이재채의 『만덕전』 같은 유형이 대표적인데, 이 작품은 앞서 예문들에서 살펴본 응제문과는 거리가 멀다. 이 글이 선행 작품과 차이를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작가가 작품 도입부에서 만덕의 외모적 특징이나 성품은 물론 기생이라는 신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이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만덕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제민들을 진흥→상경과 금강산 구경의 경위→제주도의 귀환’이라는 요약적 서사 과정의 말미(末尾)에, 만덕이 서울에 있었을 당시의 예

31) 丁若鏞, 『重瞳辨』,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이 글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주 37과 관련된부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32) 만덕이야기가 허구와 사실이 뒤섞이면서 다양한 서사양식에 정착되며 풍부한 서사층위를 갖는다는 측면의 논의는 진재교, 앞의 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248~250쪽 참조.

피소드 등을 부연하는 이형(異形)의 일화를 보인다.<sup>33)</sup>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역시 여타의 「만덕전」처럼 만덕을 추앙하는 기본 논조나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작품군의 일체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작가 심노숭의 작품을 상세히 검토하고, 만덕의 선행을 부정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당시 작자가 처한 개인적 사회적 입장 차와 연결시켜 분석하기로 한다.

### Ⅲ. 심노숭이 만덕을 부정하는 몇 가지 이유

심노숭은 「계섬전」(桂織傳)<sup>34)</sup>을 짓고 그 말미에 제주 기생 김만덕의 일화를 부기(附記)하는데, 비교적 짧은 내용이므로 전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33) 이 작품 말미에 붙은 에피소드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만덕이 서울에 갔을 때, 윤상국의 소부 처소에 묵었다. 한 달 뒤 만덕이 1500전을 싸들고 사례하려 하자 소부가 사양하였다. 얼마 뒤, 소부가 종들이 ‘만덕이 돈을 싸들고 들어왔지만 작은 마넛은 받지 않으니 우리들과 온종일 즐겁게 놀아야 한다’라고 한 말을 만덕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만덕은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습니다. 더구나 돈 1000여 폐미가 밥 한그릇에 비길 바이겠습니까.” 하였다. 둘째, 서울의 악소매가 만덕의 재물이 탐이 나서 접근하려 하자 만덕은 구휼하기도 바쁜데 탕자와 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李載采, 「萬德傳」, 『五園集』,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 대동문화연구원, 2002, 439~440쪽 참조. 이 글의 편역은 김건우,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학당, 2003, 32~35쪽 참조.

34) 「계섬전」(沈魯崇, 「桂織傳」, 『孝田散稿』 7책, 학자원 영인본 3책, 1157~1164쪽)은 심노숭이 기생 계섬의 불우한 인생 역정을 듣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지어준 작품이며, 저자는 이 글의 논평부에서 계섬의 삶과 가치관, 신념 등과 대조되는 차원에서 기생 만덕을 거론한다. 참고로 계섬은 기생이면서도 정파적으로 노론계 시파를 지지하고, 빼어난 가무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계에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흙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隸局)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녀의 전(傳)을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때면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을 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폐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 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섬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볼 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이 칭송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인다. 무릇 세상의 명과 실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니 계섬의 이른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sup>35)</sup>

이처럼 심노승이 기생 계섬의 일화 뒤에 덧붙인 만덕이야기는 상계의 「만덕전」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본고는 심노승이 기생 만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각도로 탐색해 보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전제는 심노승은 만

35) “前年耽羅妓萬德出粟助賑，朝廷驛召隸局婢首，遊金剛往來，乘驛官饋，命題敍傳，試閣中諸學士。嚮余在島中，聞德事頗詳。性凶恪，視金從之，金盡而去，輒奪其衣袴，所藏男子衣袴累百數，每纏纏出點晒，郡妓唾罵之。北商以德敗者相續，德富甲一島，兄弟有丐食者不顧。至是，島飢納穀，願至京遊金剛，謂其言落落可觀，諸學士傳多稱之。余既爲「桂織傳」，又附見萬德事如此，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此類，若織所謂遇不遇何足道也!”(沈魯崇, 「桂織傳」, 『孝田散稿』 7책, 학자원 영인본 3책, 1163~1164쪽)

덕의 전(傳)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상 인물전이란 후세의 모범이 될 인물의 됴됨이를 예찬하며 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기록한 전통성 있는 글이다. 만덕을 부도덕한 인물로 인지하였던 심노승을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가 그녀에 대한 인물전을 짓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노승이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만덕의 일화를 기술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만덕의 선행이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강력한 작가의 의지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심노승은 조정의 학사들이 실제 제주의 사정을 모른 채, 마치 앵무의 새처럼 만덕의 칭송을 답습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기록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심노승의 기록이 채제공의 『만덕전』이나 상계의 기타 응제문과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서 만덕의 서사가 시작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심노승은 왜 만덕을 여타의 작가들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또 저자는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했던 것일까? 본고는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만덕이야기가 전언(傳言)된 경위 곧 ‘정보 습득의 차이’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심노승의 부친 심낙수는 1793년 제주목사가 되기 때문에, 중앙의 관료들과는 달리 이 지역의 실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문에서 저자가 밝혔듯, 심노승이 기술하고 있는 이 만덕의 이야기는 그가 1794년 제주목사였던 부친을 뵈기 위해 탐라를 방문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실제로 들은 것이다. 이것은 만덕의 부도덕한 사실이나 실상 규명을 위한 신빙성 있는 근거임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잠시 채제공의 『만덕전』이 만덕의 구휼행위를 치하한 왕명으로 집필된 작품이자 만덕이야기의 효시(嚆矢)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하지만 당시 78세의 노구(老耇)였던 채제공이 만덕의 전기를 짓기 위해 제주의

실정을 직접 살피거나 반영하여 창작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 그가 제주를 방문했다는 기록 역시 찾기 어렵다. 또 한편으로 주지할 사실은, 체제공의 「만덕전」에서 저자가 상경한 만덕을 직접 만났으며, 그녀로부터 그간의 정황에 대해 소상히 듣고 확인된 사실을 입전하였다고 밝힌 대목이다.<sup>36)</sup> 정리하면 체제공은 비록 제주에 가지는 못하였으나, 「만덕전」의 실존 인물인 만덕을 직접 만났으며 그로부터의 직접적 견문에 의존해 해당 작품을 지었다. 때문에 후자의 진술 곧 작가가 미담의 주인공이자 당사자인 만덕을 실제 만났음을 진술함으로써 「만덕전」은 그 자체로 신뢰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된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도달한다. 혹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미담을 전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는 체제공은 국왕의 특전으로 상경한 만덕을 면대하고 담화하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니 미담 당사자의 존재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인물에 대한 객관성이 과연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물론 위와 같은 질문에 해답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정약용이 만덕에 대해 쓴 글이 어느 정도의 이해를 돕게 할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의 기녀 만덕이 자기의 재산을 희사하여 진흙을 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겠다고 간청하므로, 역마(驛馬)로 불러서 한양에 오게 하였다. 만덕이 스스로, 자기의 눈은 중동(重瞳)이라고 하자, 공경(公卿)들이 서로 전하면서 이야기꺼리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불러 오게 하여 묻기를, “너의 눈이 중동(重瞳)이라는 것이 사실이나?” 하니, 그는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무릇 궁실(宮室)과 누대(樓臺)와 초목(草木)·인물(人物)이 너의 눈에는 하나가 모두 둘로 보이느냐?” 하니, 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36) 蔡濟恭, 『萬德傳』, 『樊巖集』 55, 한국문집총간 236. 이 글의 번역은 이가원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137~142쪽 참조.

“그렇다면 너는 중동이 아니다.” 하고, 가까이 가서 그의 동자(瞳子)를 보니 그 눈에 흑백의 정동(睛瞳)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중동이라는 설(說)이 끝내 횡행하고 그치지를 않으니, 사람들이 허탄(虛誕)함을 좋아하여 스스로 어리석게 되는 것이 이와 같다.<sup>37)</sup>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만덕은 스스로의 눈을 중동(重瞳) 곧 ‘겹눈동자’라고 일컫는다. 예부터 눈동자가 2개인 중동을 가진 사람은 성인의 눈을 가졌다 하여 비범한 인생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동시대의 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중동을 가진 인물들은 대개 대성(大聖)·대현(大賢)이거나 정반대로 간흉(姦凶)이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sup>38)</sup> 때문에 세간의 사람들은 그녀의 중동설(重瞳說)을 믿고 이야기를 부풀려 나가고 있으며, 정약용은 허와 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못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한다. 그는 이에 덧붙여 중동의 이치에 대해 논증하면서, 만일 눈동자가 두 개라면 착란되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로부터 겹눈이라 불리던 순(舜) 임금과 항우(項羽) 또한 실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측한다.<sup>39)</sup>

37) 丁若鏞, 『重瞳辨』,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濟州妓萬德, 捐貲振恤. 請見金剛山, 驛召至漢陽. 萬德自言厥目重瞳, 公卿轉相傳噪. 余爲招至, 問: ‘汝目重瞳, 有之乎?’, 曰: ‘然.’, 曰: ‘凡宮室樓臺草木人物, 於汝視一皆成兩乎?’, 曰: ‘不然.’, 曰: ‘然則汝非重瞳矣.’ 遍視之, 其黑白睛瞳, 了不異人.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38) 李德懋, <重瞳>, 『蟲葉記三』, 『靑莊館全書』 56, 한국문집총간 258. “自古重瞳, 大舜、顏子、項羽、王莽、呂光、沈約、魚俱羅、蕭友孜、李煜. 舜與顏大聖大賢, 而餘皆不克終. 我國南袞、鄭命壽及鄭汝立子, 皆重瞳, 俱爲姦凶. 我族人有一眼重瞳者, 碌碌無他技能. 平生有不喫飯之病, 朝夕只以餅餌充腹而死. 亦異事也. 明霍韜, 亦重瞳. 金官志(撰人關), 首露王始生, 容貌甚偉, 身長九尺, 龍顏重瞳.”

39) 丁若鏞, 『重瞳辨』,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大抵瞳之有童, 人以人面照之也. 樓臺照爲小樓臺, 草木照爲小草木, 其有小樣, 卽所以視此物也. 令瞳重設, 則一瞳各照一小樣, 一物不成兩視乎? 此易知之理也. 卽虞舜、項籍之目,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간에 만덕의 눈이 중동이라고 회자되기 시작한 발원지가 바로 만덕 본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를 중동이라 믿는 만덕은 과연 이러한 단어가 주는 함의를 모른 채 이야기했던 것일까? 자신을 중동이라 칭하는 것이 바로 비범한 인물의 반열에 놓인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주인공을 실제 만나 기술한 채제공의 『만덕전』은 다소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심노승의 기록은 제주 기생 김만덕의 일화가 정보 습득의 차이 면에서 채제공 이하 응제문을 지어 올린 학사들과의 전기와 다르게 ‘제주의 실정’을 반영했음을 제시하기에 설득력을 갖는다. 심노승이 제주에서 직접 전해들은 도민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세 번째 항에서 기술할 ‘기생의 실리 추구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위기 의식’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해당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한편 심노승이 만덕 일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띠게 된 또 다른 요인으로는 동시대 문인들 간 노정되는 ‘치산(治産)이나 치부(致富) 행위에 대한 시각차’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에서 본격화된 치부담(致富談)은 18세기를 전후로 출현하는데, 이전 시기와 다르게 변화된 대내외적 사회경제 동향은 재산 증식의 과정에 관심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 사대부 중에는 실학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치부와 치산 행위는 물론 공동체를 위해 그 용도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sup>40)</sup> 이는 특히 남인계를 거점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논의되는데, 이후 다산을 중심으로 실천 윤리와 실용을 본령으로 현실참여론을 이끌어내는 실학적 경세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

亦必非重瞳。令果重也，視物迷錯，不辨數目，一廢人矣。”

40) 신성환, 『조선후기 ‘치산’의 문제와 <치산편>의 의미』, 『어문연구』 45, 어문연구학회, 2017, 195~202쪽.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조선후기의 일이었으며, 이전 시기의 사대부에게서 부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는 억압되고 은폐되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본디 사족(士族)의 이상(理想)은 관리가 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안일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sup>41)</sup> 사실 사대부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명분은 가난과 청빈한 미덕을 예찬하는 것이 통념이며, 그 선행의 결과 높은 지위를 얻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하였다. 심노송도 이러한 시각에 편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재화를 인위적으로 축적하는 행위에 사족으로서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기실 심노송이 찬술한 여러 작품을 살펴보면, 치부술(致富術)을 예찬하는 기록은 거의 찾기 어렵다. 그의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치부 능력에 의거하여 대중을 위한 선행이 실천되었다손 치더라도 부정적으로 축적된 치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혹은 정당한 치부·치산 행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배제한 채 인물의 선행 그 자체만을 예찬한다.<sup>42)</sup>

이러한 맥락에서 추론해 보자면, 심노송이 만덕의 치부 과정을 비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다시 『계섭전』의 김만덕을 들여다보자. 심노송에 따르면, 그녀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인정사정없는 무자비한 인물이며, 품성 또한 ‘음흉하고 인색’하다. 더욱이 이 작품에서는 만덕이 이룬 경제활동의 성과가 기생업에 의탁한 것임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sup>43)</sup> 실제 제주에서 전하는 “개같이 벌어서 만덕처럼 쓴다.”는 속담은

41) 정하영, 『치부담(致富談)에 나타난 윤리관(倫理觀)』, 『이화어문논집』 9, 이화어문학회, 1987, 153쪽, 주 6의 내용 참고.

42) 심노송의 인물전류에 나타난 치부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입장에 대한 연구는 줄고(같은 논문, 116~123, 151~168쪽)에서 분석한 『사가야화기』(四街夜話記)·『현계환전』(玄啓桓傳)·『전장복전』(全長福傳)을 참조.

만덕이 재화를 축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심노송의 부정적 시각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만덕의 재화 증식 과정은 물론 그녀를 ‘협녀’(俠女)에 비유하면서까지 긍정적으로 인식한 남인계 인사들의 기록과 판이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심노송의 정파적 입장이 당시 가장 우위에 있었던 노론이었다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심노송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 채, 청빈함을 안분지족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급주의의 최고점에 있었으며 동시에 엘리트주의적 사고를 견수(堅守)할 수 있는 입지였기 때문이다.<sup>44)</sup> 특히 이 당시 정치적 국면은 정조가 노론의 독주를 막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으로 남인계 인사를 등용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만덕전』이 그간 정치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던 남인계에 의해 주도적으로 집필되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심노송을 위시로 하는 기득권 실세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다른 의식 기반을 배태하고 있음을 명증하는 것은 아닐까?<sup>45)</sup>

43) 양정필의 「18세기 후반 김만덕(金萬德)의 경제활동 재고찰(再考察)」(『사학연구』 125, 한국사학회, 2017)에서는 김만덕이 상업 활동으로 부를 쌓아 거상이 되었다기보다는, 기녀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입장에서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44) 그렇다고 이 당시 심노송이 권귀(權貴)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1795년 부친 심낙수는 정계에 은퇴하여 하락세에 있던 시기였으며, 심노송 또한 1790년 소과 급제 이후에도 노론 벽파 정객들의 간섭으로 8년 동안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심노송은 1797년 6월 정민시(鄭民始)의 추천으로 영희전(永禧殿) 참봉(參奉)이 되는데, 1797년은 그가 『계섬전』을 기록한 시기[1797년 여름으로 추정]와 맞물린다. 심노송이 『계섬전』을 집필할 시기, 그 정계 진출의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심노송의 정파적 입장과 그간의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현실정치를 염원하면서도 정치 인사들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근본주의자였던 부친의 정치적 입장에 성향과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45) 그러나 노론계로서 만덕을 비판하는 작가는 심노송에 국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위의 주 44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심노송이 『계섬전』을 기록했을 당시만 해도 그는 벽파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정계 진출에 성공했으며, 정치적 기반이 약세에 놓여 있었어도 무력할 정도는 아니었다. 허나 이처럼 심노송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요인은, 정작 그 부친이 노론 시파의 선봉적 역할을 맡고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의 치부술(致富術)을 부정하는 심노승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심노승의 문헌에서 김만덕을 언급한 또 다른 작품은 찾기 어려웠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자면, 심노승은 만덕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할 경우 치세를 위해 하교한 정조에 대한 기만이나 불충(不忠)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염려한 것은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심노승이 만덕을 부정하는 이유는 ‘기생의 실리 추구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위기의식’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사실 기생의 실리 추구는 조선후기의 대내외적 사회변화 요인 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애초에 관물(官物)에 불과하던 기생의 예능과 섹슈얼리티는 양반 사이에 교환과 증여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sup>46)</sup> 그러나 국가와 지배계급의 점유물이었던 기생이 조선후기부터는 도시의 중간계층도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sup>47)</sup> 기생의 실리 추구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

당익(黨益)이나 당파적 의리에 귀속하는 것을 회피하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심노승은 노론이면서도 시파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형적 인물이다. 그렇다면 (심노승 이외에) 주류 노론계에서 만덕의 일화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데 편승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유배시 제주에서 써주었다던 김정희의 현관 논의를 상기하면, 기득권이 되지 못한 당파와 김만덕의 관계, 또는 주류 당파에서는 개의치 않는 (만덕의 이야기) 치세의 방편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본다. 이 과정 속에서 치부 행위에 대한 당파적 입장이 함께 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노론과 남인의 사회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46) 김진희, 『조선조 서사물에 나타난 기생 섹슈얼리티의 함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이 논문은 조선 전기와 후기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담론 주체의 기생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과 인식 과정을 분석한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서나 담론 주체의 욕망을 표현하는 교환경제적 기생섹슈얼리티는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도출해낸다는 측면에서, 심노승 외 동시대 문인들을 이해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47) 강명관, 『조선후기 기녀제도의 변화와 경기(京妓)』,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기생이 사적 영업을 통해 경제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갖추게 되자, 점차 그들의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적 산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사회적으로 승인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기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스로 경제력을 갖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는 변화된 구조는 남성 집단 내 반발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sup>48)</sup>

이처럼 조선후기 기생의 실리 추구가 가능해지고 경제력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남성 집단내 반발이 심노승의 『계섭전』에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또 앞서 살펴보았듯, 심노승의 경우 재회축적이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족이었기 때문에 김만덕의 치산이나 치부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던 만무했다. 『계섭전』에서 밝힌 바, 심노승이 제주에 거처했을 당시 그에게 만덕 일화를 전해 준 발화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담화 주체들에 의하면, 그들은 만덕의 영업에 참여한 대개의 남성들이 패가 망신한 것을 문제 삼고 특히 상인 등의 특정 계층까지 기술하는 바, 기생의 사적 영업은 중하위층까지 확산되었음을 명시한다. 결국 만덕의 치산을 부정하는 주체들의 언술은 계급을 막론한 남성 집단내 표층적 위기의 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한편 ‘당시 남성(男性)의 실리 추구에 대해 사대부의 의식은 우호적이었나?’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일찍이 논구되었듯 조선의 18~9세기는 사회 경제적 유통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 시대와는 구별되는

48)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학회, 2012, 197쪽)을 참조하면, 사대부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기술된 여성의 경제행위는 농사와 양잠, 실 잣고 옷감 짜기, 삼바느질 등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행위였으며, 이를 통해 생겨난 재산증식에 관용적이었다. 이러한 시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사대부 여성의 경제 활동을 긍정하는 심노승의 기록은 그의 저서 『효전산고』를 통해서도 왕왕 확인할 수 있다.

사회였던 것으로 볼 때, 신분고하와 달리 남성의 이윤 추구는 어느 정도 허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 여성(女性) 특히 기생의 경제활동에 따른 이윤 추구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성차(性差)는 물론 위계질서에 있어 여전히 상하 수직 구조의 규범에 구속받았던 만큼, 기득권 남성들에게는 배격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어쩌면 당시 만덕의 일화가 (왕명에 의해 집필된 측면과는 별개로) 민간에서 회자되며 세간의 이목을 끈 것 또한 이를 방증하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고는 기생 김만덕의 이야기를 통해 심노송의 사회경제관과 정치적 입장 그리고 남성 담화 주체자로서의 사대부의 인식을 동시대 문인들과의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sup>49)</sup> 심노송은 김만덕의 출신 성분과 치부 과정의 방식을 고증함으로써 그녀를 제주 기민을 구출한 치적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sup>50)</sup> 필자가 이러

49) 이 밖에 만덕에 대한 심노송의 부정적인 인식은 세대(世代)·장유(長幼)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와의 차이에서 기인하다고도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요컨대 체제공과 심노송이 만덕의 이야기를 기술한 시점을 놓고 볼 때, 그 작가들이 만덕의 일화를 공유한 시공간의 세대차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심노송이 1797년 『계섭전』에 김만덕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의 나이는 36세였으며, 체제공은 「만덕전」을 78세의 연로한 때에 집필하였다. 또 이때 김만덕의 나이가 58세였음을 상기해 보자. 청장년의 패기 넘치는 심노송과 생을 마감하는 기로에 있는 체제공이 퇴거(退妓) 김만덕의 치산과 그 구출과정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인가 하는 제문제제, ‘노소(老少)간의 시각차’와 ‘정파적 입장차’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아직 정리가 미진하며, 단순화될 여지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문학적으로 검증·해명해야 할 작업으로 남아 있다.

50) 한편 심노송이 만덕을 부정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만덕전은 제주목사였던 부친 심낙수가 구제하지 못했던 가난을 만덕이 대신 구제한 상황에서 발생한 열매감”으로 읽힐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심사자 선생님의 고견도 있었다. 연구자 역시 기존에 심노송 문학을 연구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향성을 포착한 바 있고, 그 뒤를린 내막을 해당 문인의 정치적 입장과 연계시켜 논의하였기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효전산고』가 심노송 스스로 자신의 문학 일체를 선별하여 엮은 텍스트라는 점, 또한 기왕의 만덕의 일화가 왕권으로 허여된 작품이었던 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

한 심노승의 인식에 집중하는 것은 김만덕의 공적에 대한 흠집 내기 혹은 화석화된 그 예찬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의 경제활동을 수용하는 당대인들의 다채로운 문화·사상적 양태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만덕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는 심노승의 시선은, 제주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여성·기생·치부를 타자화하는 남성 특히 노론계 사대부의 인식과 그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수궁할 수밖에 없는 당대 의식의 소산과 그 실상을 드러낸다.

#### IV. 결론

이 연구는 김만덕에 대한 기존 사대부들의 의식이 결코 단일하거나 정태적이지 아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각개의 작가들이 놓인 사회·정치적 역학관계 속에 김만덕이 지난 역사의 어느 지점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지 아울러 보여주거나 시도되었다. 따라서 대중에게 각인된 일률적인 김만덕의 업적이 당대 구성원들의 사회적 입지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음을 주지시키고, 이러한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컨대 기층민의 토대 속에 남성과 여성의 문제, 직업과 학력으로 인한 차별적 인식 태도, 여전히 재생산되는 기득권 중심의 의식 소산 속에 노정되는 여러 다층적인 문제 등을 짚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또 다른 후속 연구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당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그 자장 안에 노출된 배경 속에 제각기의 입장차가 나타난다. 문학이란 그저 작가 개인의

---

노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향적인 측면에서 성토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태적 기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뿌리박고 있는 시공간을 조우하며 나름의 성찰 속에 형상화된 산물이다. 따라서 해당 작가의 문학작품이 형성된 연원을 찾는 작업은 각개 인물들의 삶에 기저한 사회정치적 제반 여건 등의 일체로 역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을 유념하면, 개별 작가에 따라 달라지는 만덕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 대한 고찰은 김만덕의 출신 위계 곧 기생으로서의 삶에 대한 재조명, 조선후기를 전후로 달라지는 기생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여성 주체를 형상화하는 방식의 태도 변화와 그 치부 행위에 대한 사대부 시선의 상대성 등의 연구로 이어질 수 있으리 본다. 이러한 고찰 속에 기생 김만덕을 개별 작가군의 정파적 갈등과 치세·치국의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부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역사서가 아닌 문학으로써 사색당파의 추이를 읽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承政院日記』

『日省錄』

『正祖實錄』

金熙洛, 『故寔』 권4, 규장각 소장본.(古 0270 13)

沈魯崇, 『孝田散稿』 1-13권, 학자원 영인본, 2014.

李德懋, 『靑莊館全書』, 56, 한국문집총간 258.

李羲發, 『雲谷集』, 한국문집총간 속 111.

李載采, 『五園集』,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 대동문화연구원 2002.

丁若鏞, 『興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蔡濟恭, 『樊巖集』 한국문집총간 236.

洪羲俊, 『傳舊』 10책, 규장각 소장본.(古 3428 290)

### 2. 논저 및 단행본

강명관, 「조선후기 기녀제도의 변화와 경기(京妓)」,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5~28쪽.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학회, 2012, 189~219쪽.

김건우,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2003, 1~390쪽.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총서 I 恩光衍世』, 도서출판 각, 2007, 1~513쪽.  
\_\_\_\_\_, 『김만덕 자료총서II』, 도서출판 각, 2008, 1~292쪽.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1~98쪽.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1~26쪽.

김진희, 「조선조 서사물에 나타난 기생 섹슈얼리티의 함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학회, 2011, 335~370쪽.

신성환, 「조선후기 「치산」의 문제와 <치산편>의 의미」, 『어문연구』 45, 어문연구학회, 2017, 187~214쪽.

양정필, 「18세기 후반 김만덕(金萬德)의 경제활동 재고찰(再考察)」, 『사학연구』

- 125, 한국사학회, 2017, 229~270쪽.
- 이가원 교수,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1~514쪽.
- 이창훈, 「김만덕의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2011, 193~230쪽.
- 정하영, 「치부담(致富談)에 나타난 윤리관(倫理觀)」, 『이화어문논집』 9, 이화어문학회, 1987, 151~169쪽.
- 조도현, 「『만덕전(萬德傳)』에 나타난 여성성의 의미 탐색」, 『인문학연구』 8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01~121쪽.
- 진재교,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231~264쪽.
- 한세해, 『심노승의 정치적 입장과 산문세계』,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1~188쪽.

ABSTRACT

Sim No-sung's Another Point of View about  
Jeju Kisaeng Kim Man-deok

Han, Sae-h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ay attention to the cause of the literaturization process of Mandukjeon, the story of Jeju kisaeng Kim Man-duk, and to reconstruct the forma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historical flow of his time. In other words, based on the literary technique realization method of Kim Man-deok who has been regarded as the "a righteous merchant who helped the poor people of Jeju" in the meantime, I want to. In particular, I look at the socioeconomic requirements of the noblemen who look at the act of Kisaeng, based on the personality of Sim No-sung who presented the negative view of Kim Man-deok uniquely among the existing recorded documents. Thus, Sim No-Sung's view on the fossilized Kim Man-deok's story will provide the ideology and dissipation of the ritual of the Noron's ability, who has otherized women, Kisaeng, and earning the money in the special space of Jeju.

**Key Words**

Kim Man-deok, Sim No-sung, Faction, Difference in information acquisition, Earning the money, Kisaeng, A sense of crisis

논문투고일 : 2019.09.30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